

제 34 호 1985년 5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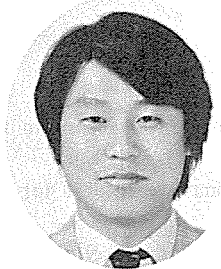
물리치료회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한 배의 선원이 돼 주시길...

홍 정 선 / 사무국장



회원여러분!

사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은지 4개월이 지나서야 협회지의 지면을 통해 드리는 인사가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먼저 제게 협회지의 1면이라는 커다란 면을 허락해 주신 협보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기회에 회원 여러분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4개월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겐 마치 4년을 지낸 듯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모든 면에서 빠른 시간내에 거대해져 버린 협회의 살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올해는 창립 20주년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있고, 내년에 '86아시안게임을 맞게 됨에 협회의 역할이 막중해지리라는 중압감 때문입니다.

더 더욱 어려운 것은 협회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보수교육에 대한 아직도 몇몇 회원들의 미미한 참여의식이라는 난제가 우리 협회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재정적인 면에 대해 얘기한다면 창립 20주년에 들어서면서 역대 회장단 여러분의 노고로 우리들의 짐을 갖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이전에 협회지를 통해 아시다시피 반면에 그 여파로 인한 재정적인 압박으로 협회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면 믿으시겠는지요? 이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충분한 반박도 예상이 됩니다. 협회 사무국 운영의 미숙이 초래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상세하게 말씀드릴다면, 이미 85회계연도의 1/3이 지나갔는데도 협회비의 납부현황이 회원의 30%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각 지부의 경우를 봐도 약간의 차이가 있겠읍니다만, 지부 운영비가 부족한 형편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우리 협회가 가장 주된 수입원인 협회비 수거의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있다면 방관하시겠는지요? 이는 사무국의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다는점 시인합니다. 이런 연유로 협회는 자구책, 아니 교육책으로 개개인 회원분들께 편지를 띄우고 수금원을 보내 협회비를 수거하는 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협회를 우리가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고 한 배에 탔다는 동료의식으로 협회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수교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수교육은 협회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국가시책의 일부란 것과 각 의료기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할 교육이라는 것은 시행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주듯 우리 몸에 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수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회원이 있고, 참여를 안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지내는 회원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수교육이란 것이 협회의 운영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식해 주시고 차후의 모든 보수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석해 주시어 보수교육의 질을 우리 스스로가 높이고 많은 회원을 만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대화의 광장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협회의 모든 홍보에도 마다하시고 84년도 보수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분에게는 회원들의 의견과 보건사회부 지시에 의거하여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보건사회부 경고장이 각 회원에게 발송됩니다. 물론, 협회란 곳이 회원징계를 위한 곳이 아니고 회원의 복리와 권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조성된 우리의 단체란점 잘 알고 있으나 누락된 회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시행케 되었습니다. 아니 보건사회부의 지시를 시행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회원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인지하여 주시고 협회의 모든 사업이 회원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으로 다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금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것 같이 창립 20주년입니다. 더욱이 올해로 회원이 2,600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커진 살림과 회원들의 알찬 복리증진과 이익을 위하여 사무국은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2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의견과 사무국에 대한 좋은 의견을 협회로 보내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또 올해의 학술대회는 더욱 더 뜻 깊은 만큼 알차고 좋은 원고와 발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회원이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